

실무진 사전조율 없이 문 대통령-김정은 ‘당일치기’ 담판

남북정상회담 D-3 ‘4·27 선언’ 어떻게?

공동선언문·합의문…남 국정원-북 통전부 초안 마련 가능성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대 전기가 될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이른바 ‘4·27 선언’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언문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남북은 공동선언문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은 정상회담 전 실무진이 사전에 조율한 다음 양국 정상이 만나 서명해 완성되지만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은 그러한 절차를 따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의 특수성이 있는데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정상 간의 담판으로 타결돼야 할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2000년과 2007에도 미리 남북 간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문이 만들어진 후 정상이 사인만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며 “(남북 정상이 만난) 그 자리에서 진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졌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공동선언문, 합의문 형식으로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문 내지 공동선언문 역시 과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때 진행했던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두 정상은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통일과 남북문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해적인 협의를 이뤘다.

배석했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실무자들의 합의문 협의 작업을 돕기 위해 회담장에서 수시로 메모를 밖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실무진이 마련한 공동성명 초안은 목란관에서 만찬을 하고 있는 양국 정상에게 보고됐으며 조율 및 수정 작업을 거쳐 이날 밤 11시 10분께야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용순 위원장은 남북 인사들과 김 위원장의 방을 오가면서 대신저 역할을 했고 남북 정상은 밤 11시 30분에 공동선언문에 사인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10·4 공동선언 역시 10월 3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오후 회담이 끝난 직후 만들기 시작해 심야 협의를 거쳐 다음 날까지 양측 실무자 간 조율을 통해 완성됐다. 빠대는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총 4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 내용이었다.

실무 조율에는 남측에서 당시 서훈 국정

원 3차장과 조 비서관, 북측에서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 원동연 통전부 실장 등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 다섯 차례 접촉하며 4일 오전 10시까지 공동선언문 초안의 골격을 잡았고 자구 수정 등을 거친 후 오전 11시 30분께 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최종적으로 이날 정오께 선언문을 완성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 역시 2000년과 2007년의 절차를 따를 확률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남측의 국정원과 북측의 통전부 간의 채널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당일치기로 이뤄지는 만큼 ‘밤샘’ 실무 조율 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큰 틀의 방향을 잡아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상회담, 5G 가상현실로 생중계

판문점 자유의 집 브리핑 등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차세대 이동통신 5G 기반의 가상현실(VR) 생중계를 통해 국내외 취재진에 전달된다. 또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는 5G 체험 공간도 들어서 한국의 5G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주관통신사인 KT는 판문점에 방송망, 전용회선 등 통신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킨텍스 프레스센터에 방송망과 통신망을 제공하고, 5G 기지국을 설치한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진행되는 브리핑은 일반 방송 중계뿐 아니라 KT의 5G망을 통해 360도 VR 영상으로 킨텍스 프레스센터에 실시간 중계된다.

KT는 자유의집에서 360도 VR 카메라로 촬영한 브리핑 영상을 프레스센터 내 자사 부스에 전송하고, SK텔레콤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

은 프레스센터에서만 볼 수 있다.

SK텔레콤도 프레스센터에 5G 인프라와 전신 부스를 설치하고, KT에서 넘겨받은 원본 영상을 5G 태블릿을 통해 기자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탑재한 HMD(머리에 쓰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 360 VR로 남북정상회담장을 둘러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프레스센터 안팎에는 두 통신사의 5G 기술 체험 공간도 들어선다. SK텔레콤은 프레스센터 내 전시장에 199인치 크기의 초대형 ‘스마트월’(Smart Wall)을 설치해 회담 관련 뉴스와 과거 남북정상회담 영상 등을 보여줄 계획이다.

KT는 킨텍스 외부에 25일부터 27일까지 5G 부스를 활용한 ‘이동형 5G 홍보관’을 마련해 국내외 취재진과 시민에게 5G 기술을 소개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황청,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오스트리아 국영 방송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25일에는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 두 간호사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26일에는 두 간호사의 국민 오스트리아를 방문, 피서 전 대통령을 접견한다. 피서 전 대통령이 국제 공조를 위해 추천위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6대 종단 “비핵화·평화협정 기원”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광주·전남지역 6대 종단 종교인들이 23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있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비롯해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전남도, 기념사업 발굴 우수

전남항일운동기념탑 건립, 3·1운동 발원지 정비, 한말 호남의병 창극 제작, 그날의 함성 만세 릴레이, 전남독립기념관 건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전남도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사업 위해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체계화해 전국 모델로 인정받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난 2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추진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걸어온 100년을 기억·성찰하고 미래 100년을 설계·전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 기념사업과 연계한 자체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자치행정과)를 지정하고 TF추진단을 설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TF추진단은 고재영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기념사업 발굴과 기획을 위해 관광과·문화예술과·문화산업디자인과·사회복지과·총무과·자치행정과 등 6개과가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그동안 전남항일운동기념탑 건립, 3·1운동 발원지 정비, 한말 호남의병 창극 제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67개 사업을 발굴, 최근 중앙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비는 국비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대만·日 크루즈관광객 4천명 여수 온다
오늘 대만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호 입항

대만과 일본에서 4000여 명의 대규모 크루즈관광객이 여수항으로 들어와 여수 관광에 나선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 2200여명을 태우고 대만에서 출발한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호는 24일 여수 크루즈부두에 입항한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일본에서 출발한 ‘MV 오션드림’호가 1800여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여수항 크루즈 부두로 들어온다.

전남도, 여수시, 한국관광공사는 입국관광객을 위한 환영 행사도 연다. 해상에서 난바벌 ‘점프(JUMP)’ 공연을 비롯해 취타대와 풍물놀이 등 공연과 기념품, 사진촬영 이벤트 등 다채로운 환영행사를 펼친다. 아쿠아리우스호 승객들은 빅 오(Big-O)쇼 등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하는 5개 기항 프로그램을 즐긴다.

아쿠아리우스호는 대만 기항을 출발해 여수, 일본 나가사키를 경유한 뒤 기항으

로 돌아가는 5박 6일 프로그램으로 운항한다.

오션드림호 승객들은 여수바람화장, 케이불카, 레일바이크 등을 체험 중심의 기항 프로그램을 즐기게 된다. 오션드림호 크루즈 여행은 요코하마에서 출발해 중국 칭다오, 여수, 일본 사세보를 경유해 요코하마로 돌아가는 9박 10일 프로그램이다.

여수항은 암웨이그룹, 완메이그룹, 우시엔지그룹, 커티그룹 등 기업의 포항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오는 6월에는 대만 관광객 3000여명을 태운 ‘슈퍼스타 버거’호가 여수항에 들어올 예정이다. 유영관 전남도 관광과장은 “올해 크루즈 입항은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 해외 유람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인프라, 맛있는 음식 등 기항지로서 감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	-------------------------------

↓ ↓ ↓

식후 2배속삭~~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상표번호 : 21719239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성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1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인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시세가 3억 3천◆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